

예비보육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보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on the General Self-Efficacy and the Efficacy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이세나*

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Lee, Sae Na

Assistant Professor,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Youngdong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aims to find out and examine the variables that make a difference between pre-service teachers' child care efficacy (CCE) and general self-efficacy (GSE). The subjects were 232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going 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 colle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of "age", "teacher training facilities", "field experience in child care centers", and "experience of child care" and "paraprofessional teachers" are important variables in pre-service teachers' CCE. Second, the variables of "age", "level of education", "teacher training facilities", "field experience in child care center", and "experience of child care or paraprofessional teachers" significantly affect the pre-service teachers' GSE. Third, the "age" variable is essential in explaining pre-service teachers' GSE. The Pre-service teachers' GS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service teachers' CCE.

Key Words :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Child Care 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I. 서론

교사의 전문적 자질이라는 것은 교수 현장에서의 수행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교사의 교수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교사의 자기효능감이다. Bandura(1986)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해 처리되고 변형되어 행동에 영향을 주게되며, 이때의 인지적 과정을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이라고 하였다(전인옥, 1996, 재인용).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상황·특수적인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효능감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행동에 대한 높은 예측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특수적인 자기효능감의 한 종류인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Ashton, 1984). 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도 능력에 대한 신념은 교수행동의 강력한 변인(Gorrell & Hwang, 1995)이며, 교수·학습과정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Amor Et AL., 1976; Brophy & Evertson, 1977; Guskey, 1988; Guskey & Passaro, 1994; Trentham, Et AL., 1985). 유아교육분야에서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놀이, 과학교육, 수학교육, 그리고 동작교육 등과 같이 좀 더 구체적 교수영역에서의 교사효능감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김은심·박수미, 2003; 김향자 외, 2004; 신은수, 2000; 안진경, 2006; 조부경·서소영, 2001; Czerniak, & Chiarelott, 1990; Enochs Et AL., 1995; Smith, 1996). 구체적 교수영역에서의 교사의 효능감은 교사의 실제 교수행동과 학습자의 성취수준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유아교사들의 상황·특수적인 효능감중 하나가 보육효능감이다. 보육효능감은 교육실제와 구분되는 영유아 보육분야에서의 교사가 자신

* Corresponding author: Lee, Sae Na
Tel: 043) 740-1158, Fax: 043) 740-1139
E-mail: snlee@youngdong.ac.kr

의 보육활동과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육효능감은 보육전반에 대한 효능감으로,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아동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현정환, 2003).

교사의 효능감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현장에 입문하기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 신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과 교사교육과 현장경험을 통하여 신념체계가 변화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능감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비교사들은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교사로서의 신념을 이미 어느정도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실습경험이나 특정 교사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김언아, 2000; 이경옥, 2002; 조부경·서소영, 2002; 황운세 외, 2004; 현정환, 2003; Gibson & Brown, 1982; Ramsey-Gassert & Shroyer, 1992; Watters Et AL., 1994). 그리고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능감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직교사의 효능감은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또 특정 교사교육 프로그램 이후에 유의한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김은심·박수미, 2003; 김향자 외, 2004; 박선혜·고영인, 1998; 신은수, 2000; 이경옥, 2002; 이분려, 1998; 이세나·이영석, 2005; 조부경·서소영, 2001, 2002; Czerniak & Chiarelott, 1990; Denham & Michael, 1981; Enochs Et AL., 1995; Gibson, & Dembo, 1985; Guskey, 1988; Ramey-Gassert, 1993). 즉 교사의 효능감은 이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교사교육과 같은 특정 경험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Denham & Michael, 1981; Ramey-Gassert, 1993). 그러나, 효능감과 같은 신념은 일회성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짧은 경험으로 변화하기 어렵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교육을 이끌어 간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신은수, 2000; 조부경·서소영, 2001; Czerniak, & Chiarelott, 1990; Enochs Et AL., 1995)을 통해 교사의 신념체계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실제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보육적 행위뿐 아니라 행위 이면에 내재된 교사의 사고과정이나 신념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전문적 준비와 교수실제에 대한 개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Pajares, 1992). 특히 교사가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갖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일찍부터 이런 신념을 형성해 왔는가 달려 있다고 보았다(Pajares, 1992). 일찍부터 형성된 신념은 신념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교사양성과정에서

정립된 교직원과 신념은 예비교사가 현직교사가 되어서 전문적인 역할수행에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목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비보육교사들의 효능감을 확인해 보는 것이 미래의 질 높은 보육·교육행동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직교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예비보육교사들은 교육 및 보육실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과 일반적 상황하에서의 효능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 번 증가된 자기효능감은 다른 상황에서도 쉽게 전이되는 효능감의 특성상(Bandura, 1977; Shere Et AL., 1982) 예비보육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보육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과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예비보육교사들의 긍정적 효능감 형성과 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보육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라 보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2. 예비보육교사의 개인 변인에 따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3.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교사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전문대학과 보육교사 교육원의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총 350부의 질문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질문지와 미회수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2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회수율은 66.29%이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변인	분류	N	백분율(%)
연령	19세 이상 - 21세 미만	124	53.4
	21세 이상 - 25세 미만	65	28.0
	25세 이상	43	18.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89	81.5
	대학 졸업 이상	43	18.5
양성기관	보육교사 교육원	24	10.3
	2년제 전문대학	95	40.9
	3년제 전문대학	113	48.7
합계		232	100

2. 측정도구

1) 교사관련변인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예비보육교사의 효능감과 관련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교사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 최종학력, 보육교사 양성기관, 보육실습경험 그리고 육아경험과 보육실습경험을 제외한 보육실제에서 보조교사 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경험과 같은 보육경험을 선정하였다(이혜주, 2002; 현정환, 2003; Gibson & Brown, 1982; Ramey-Cassert, 1993; Watters Et AL., 1994).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화적인 영향으로 해석되는 성별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나(김양현, 1994; 이현정, 1998; 최동선, 1996), 예비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성별 변인을 제외하였다.

2) 보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현정환(2003)이 사용한 보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영유아 보육이라는 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본의 櫻井(1991)이 개발한 도구를 현정환(2003)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유아를 보호·교육하는 구체적인 보육상황에서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유아들의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협조와 신뢰 등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유능감, 그리고 보육상황에서의 과제난이도에 따른 교사의 대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본 척도는 Cronbach's $\alpha = .70$ 정도의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3)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기효

능감 관련 문헌들과 척도들을 종합·분석하여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비교적 안정성있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된 것으로,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Cronbach's $\alpha = .67$, 자기조절효능감은 Cronbach's $\alpha = .85$, 과제난이도는 Cronbach's $\alpha = .71$, 그리고 전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alpha = .84$ 의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5년 9월 6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 약 13주에 걸쳐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대학과 보육교사교육원의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중에서 연령($F=6.38, p<.01$), 양성기관($F=5.49, p<.01$), 보육실습경험($F=6.36, p<.05$), 그리고 보육경험($F=6.52,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육효능감의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보육실습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M=53.91, SD=7.54$)이 보육실습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M=51.44, SD=6.68$)에 비해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M=55.15$, $SD=8.28$)이 보육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M=51.77$, $SD=6.74$)에 비해 보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효능감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19세 이상-21세 미만'의 예비교사들의 보육효능감($M=51.02$, $SD=6.34$)과 '21세 이상-25세 미만'의 예비교사들의 보육효능감($m=52.51$, $SD=6.27$) 보다 '25세 이상'의 예비교사들의 보육효능감($M=55.35$, $SD=9.00$)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M=50.47$, $SD=6.89$) 보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M=54.38$, $SD=9.11$)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M=53.27$, $SD=6.39$)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중에서 연령($F=16.12$, $p<.001$), 학력($F=10.12$, $p<.01$), 양성기관($F=7.66$, $p<.01$), 보육실습경험($F=8.65$, $p<.01$), 그리고 보육경험($F=7.62$,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예비교사들의 일반

적 자기효능감($M=82.05$, $SD=8.06$)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76.84$, $SD=10.03$)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80.52$, $SD=9.06$)은 보육실습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76.50$, $SD=10.03$)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82.22$, $SD=7.64$)은 보육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77.09$, $SD=10.04$)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19세 이상-21세 미만'의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74.73$, $SD=8.14$)은 '21세 이상-25세 미만'의 예비교사들($M=80.02$, $SD=9.62$)과 .01수준에서, 그리고 '25세 이상'의 예비교사들($M=83.30$, $SD=11.67$)과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25세 이상'의 예비교사들과 '21세 이상-25세 미만'의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19세 이상-21세 미만'의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82.71$, $SD=11.16$)은 '2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75.14$, $SD=9.94$)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M=79.00$, $SD=8.97$)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 차이

변인	구분	N	M	SD		F
연령	① 19세 이상-21세 미만	124	51.02	6.34	a ⁺	6.38**
	② 21세 이상-25세 미만	65	52.51	6.27	a	
	③ 25세 이상	43	55.35	9.00	b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189	51.83	7.05	a	3.52
	② 전문대학 졸업 이상	43	54.05	6.81	b	
양성기관	① 보육교사 교육원	24	54.38	9.11	a	5.49**
	② 2년제 전문대학	95	50.47	6.89	b	
	③ 3년제 전문대학	113	53.27	6.39	a	
실습경험	① 있다	75	53.91	7.54	a	6.36*
	② 없다	157	51.44	6.68	b	
보육경험	① 있다	32	55.16	8.28	a	6.52*
	② 없다	200	51.77	6.74	b	
합계		232	52.24	7.05		

* $p<.05$, ** $p<.01$

+ abc는 사후검증의 결과로,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3>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 차이

변인	구분	N	M	SD		F
연령	① 19세 이상-21세 미만	124	74.73	8.14	a ⁺	16.12***
	② 21세 이상-25세 미만	65	80.02	9.62	b	
	③ 25세 이상	43	83.30	11.67	b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189	76.84	10.03	a	10.12**
	② 전문대학 졸업 이상	43	82.05	8.06	b	
양성기관	① 보육교사 교육원	24	82.71	11.16	a	7.66**
	② 2년제 전문대학	95	75.14	9.94	b	
	③ 3년제 전문대학	113	79.00	8.97	a	
실습경험	① 있다	75	80.52	9.06	a	8.65**
	② 없다	157	76.50	10.03	b	
보육경험	① 있다	32	82.22	7.64	a	7.62**
	② 없다	200	77.09	10.04	b	
합계		232	77.80	9.89		

* p<.05, ** p<.01, *** p<.001

+ abc는 사후검증의 결과로,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3.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보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예비보육교사들의 변인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에 앞서, 예비교사 관련 변인들, 일반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보육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예비보육교사의 변인중에서 연령($r=.35, p<.001$), 학력($r=.21, p<.01$), 보육실습경험($r=.19, p<.01$), 그리고 보육경험($r=.18, p<.01$)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연령($r=.23, p<.01$), 보육경험($r=.17, p<.01$), 보육실습경험($r=.16, p<.01$), 그리고 학력($r=.12, p<.01$)이 보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r=.38, p<.001$), 자기조절효능감($r=.45,$

$p<.001$), 과제난이도($r=.32, p<.001$)와 전반적 일반적 자기효능감($r=.55, p<.001$)은 보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4>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보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보육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교사 변인뿐 아니라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변인으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에 의하면, 예비보육교사의 연령($\beta=.35, p<.001$)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해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이며, 예비보육교사의 연령 변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변량중 12%($R^2=.12$)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

<표 4> 예비보육교사의 변인, 보육효능감, 그리고 일반적 자기효능감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	1.00									
2	.43***	1.00								
3	-.25***	.08	1.00							
4	.41***	.38***	.06	1.00						
5	.38***	.20**	-.16*	.42***	1.00					
6	.25***	.10	-.03	.05	.15*	1.00				
7	.28***	.23**	.04	.22**	.11	.19**	1.00			
8	.22**	.06	-.01	.08	.17*	.26***	.39***	1.00		
9	.35***	.21**	.01	.19**	.18**	.62***	.84***	.66***	1.00	
10	.23**	.12**	.06	.16**	.17**	.38***	.45***	.32***	.55***	1.00

* p<.05, ** p<.01, *** p<.001

변인설명: 1. 연령, 2. 학력, 3. 양성기관, 4. 보육실습경험, 5. 보육경험, 6. 자신감, 7. 자기조절효능감, 8. 과제난이도 선호, 9. 일반적 자기효능감, 10. 보육효능감

<표 5> 예비교사의 변인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단계적 회귀분석

변인	B	β	R ²	R ² 변화량	F
(상수)	70.46***				
연령	4.45***	.35	.12	.12	31.82***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예비교사 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보육효능감의 단계적 회귀분석

변인	B	β	R ²	R ² 변화량	F
(상수)	21.95***				
일반적 자기효능감	.39***	.55	.30	.30	97.71***

* $p < .05$, ** $p < .01$, *** $p < .001$

났다($F=31.82$, $p < .001$).

그리고 <표 6>에 의하면, 예비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beta=.55$, $p < .001$)이 보육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이며, 이 변인에 의해 회귀모형은 보육효능감의 변량중 30%($R^2=.30$)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97.71$, $p < .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 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 변인에 따라 보육효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예비교사의 변인중에서 연령, 양성기관, 보육실습경험, 그리고 보육경험 유무에 따라 보육효능감에 집단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의 연령, 양성기관, 실습경험, 그리고 교사양성 교육과정 입문 이전의 보육경험이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연아, 2000; 박선훈·고영인, 1998; 이세나·이영석, 2005; 이혜주, 2002; 한석실·임명희, 2003; 황윤세 외, 2004; 현정환, 2003; Carter & Richardson, 1989; Gibson & Brown, 1982; Ramey-Gassert, 1993)과 일치한다.

예비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보육효능감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교사의 연령이 교사의 효능감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이세나·이영석, 2005; 한석실·임명희, 2003). 이는 예비교사의 연령 변인과 보육관련 경험 변인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연령변인은 보육경험여부와 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37$, $p < .001$). 보육교사는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보육교사교육원, 전문대학, 대학교 등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전의 전공과 경험에 상관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업이 용이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는 새로운 인기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꾸준히 보육교사를 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육교사를 지망하는 예비교사들 중에는 이미 자신의 아이들을 길러본 육아경험 또는 보육시설에서 보조교사, 자원봉사,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연령이 어린 예비교사들보다는 연령이 높은 예비교사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의 경험이나 육아경험을 가진 연령이 높은 예비보육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높은 보육효능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육아경험 또는 보육교사양성과정 입문 이전의 보육시설에서의 경험 외에, 보육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서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차이를 보였다. 실습은 이론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수업과 실무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 교육실천의 실제적인 이해와 기능, 그리고 교사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예비교사들의 성장, 발달, 신념체계 형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배소연, 1993; 윤기옥 외, 2002; 이은화·배소연·조부경, 1995; 이혜주, 2002; 현정환, 2003; Shapiro & Sheehan, 1986)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보육실습은 보육교사양성기관의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교육과정의 중핵적인 부분이다. 현정환(2003)은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입문하기 이전 보육경험보다 보육실습경험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점에서

보육실습경험이 예비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습경험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신념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실습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실습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연구들은(김신영, 2003; 남미경, 2006; 박은혜·이은화, 1998; 배소연, 1993; 윤정일, 2002; 이경옥, 2002; 정혜영, 2004; 황윤세 외, 2004; Gibson & Brown, 1982; McCullough & Mintz, 1992; Zeichner & Liston, 1987) 4-6주간의 짧은 기간의 실습기간, 실습 내용 구성에 대한 개념적인 틀의 부재, 실습기관의 수준, 실습기관의 조직풍토, 실습 지도교수, 그리고 동료 실습생 등의 영향으로 예비교사들은 실습후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의 정도가 더 크게 느끼기도 하고, 교사효능감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기관에 따라 예비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차이를 보였다. 즉,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양성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이 가장 높은 보육효능감을 가지고 있고, 3년제 전문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 순으로 높은 보육효능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은 교사의 양성기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기영, 2007; 최성상, 2005)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의 보육교사들이 가장 높은 보육효능감을 보였고, 대학교 졸업이상의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이 전문대학 출신 보육교사의 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성상(2005)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은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또는 교육과정의 연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효능감과 같은 신념은 특정한 교육활동이나 경험을 통하여 변화되기는 하지만 단시간에 또는 일시적인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은 양성기관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 신념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실습경험, 교육과정, 지도교수, 그리고 역할모델 등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이 가장 높은 보육효능감을 보인 것은 예비교사가 양성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 자체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설문에 응한 보육교사교육원의 예비보육교사들 중 91.67%는 25세 이상이었으며, 50%는 보육실습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33.33%의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현장에서 보조교사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예비보육교사들은 다른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예비교사들보다 연령, 보육실습경험, 그리고 보육경험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잘 보육·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많은 실무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은 단일한 보육교사 양성기관 변인보다는 연령, 보육실습경험, 그리고 보육경험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예비보육교사 개인변인에 따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 학력, 양성기관, 보육실습경험, 그리고 보육경험 유무에 따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인 변인들중 학력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예비교사의 보육효능감의 차이를 보인 변인들과 동일하였다. 이는 한 번 증가된 자기효능감은 다른 상황에도 전이된다는 효능감의 전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개인의 과거 경험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이와 같이 형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수행이 중시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Sherer Et AL., 1982)는 것이다.

교사의 학력이 교사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라고 한 연구들(이분려, 1998; 한석실·임명희, 2003; Gibson & Dembo, 1985)은 교사의 전공과 교육기간에 따라 특정 상황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보육교사로 유입되는 인구의 자격기준은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고학력의 예비보육교사는 이전 전공과 상관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이 용이하며, 전문직종이라는 점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영역으로 진로를 소신있게 선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Lent와 Hackett(1987)는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설명력이라고 하였고, Betz와 Luzzo(1996)는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정과 관련된 동기수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정진선, 2000, 재인용). 즉, 진로탐색,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인식정도를 의미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가치의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을 갖게 해 준다(Solberg, Et Al, 1995).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보육교사양성과정에 입문한 예비교사들보다 고학력의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목표설정, 문제상황에서 과제 지속성, 그리고 실패 후의 복원력 좋은 일반적 자기효능

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 교육원의 예비보육교사들이 높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보인 것도 이들중 41.33%가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보육실습(50%)과 보육현장에서 예비교사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경험(33.33%)을 가진 예비교사의 비중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예비보육교사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예비보육교사의 연령이었다. 그리고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예비교사의 연령 변인과 학력, 보육경험, 보육실습 경험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예비보육교사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높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교사의 직무에 대한 효능감은 교직경력, 근무환경 등과 같은 환경적 변인에 의해서 형성되며, 변화가능하다(이세나·이영석, 2005; 이혜주·전명남, 1998; 한석실·임명희, 2003; Ashton, 1984; Solberg Et AL.). 그러나 양성과정에 있는 예비교사들은 아직 실제 보육환경에 노출이 적기 때문에 보육실제에서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고한 결과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응용학문인 보육학 학습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적 지식이 결합된 학습방법의 어려움이 예비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때, 높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예비교사가 후에 높은 보육효능감을 가진 보육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능감의 전이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양성과정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이 높은 보육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보육교사들이 높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갖도록 자신감과 자기조절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육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결과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예비 보육교사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역의 다양한 보육교사 양성기관으로 연구의 표집대상의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연령, 학력, 양성기관,

보육실습경험, 그리고 보육경험이라는 예비교사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보육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교육과정의 편성, 실습기간, 실습기관의 시설유형, 조직풍토,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 더 다양할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예비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변인에 따른 보육효능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육교사 양성과정동안 예비보육교사의 효능감 변화를 설명하는 질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예비교사의 효능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보육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실무기능, 교사로서 전문적 자질과 신념 등에 관한 교과를 익힘으로써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양성 교육과정 속에서 예비교사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런 경험들은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예비보육교사 효능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의 교원양성정책은 양적 충원 위주로 계획된 인원이 교원배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는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윤정일, 2002). 따라서, 기능적인 교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교사들의 교육신념 체계수립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과목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둘째, 예비교사의 자질 향상에 있어 교육실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습은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실제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사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실습생 자신이 지금까지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수방법을 개발하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실습생 각자의 흥미와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별화된 교육과 실습기간 동안 임상장학 방법 등의 활용이 요구된다.

셋째, 효능감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인지적능력 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실패 후에 얼마나 빨리 복원될 것인지 등과 같이 동기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에서는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으로 진로선택을 공고히 하며, 이를 위한 노력행동이 수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공경험, 모델관찰, 사회적 설득과 같은 프로그램과 교수학습방법 개발이 촉구된다.

주제어 : 예비보육교사, 보육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참 고 문 헌

- 김신영 (2003). 유아교육현장에서 예비 유아교사들이 인식한 교사들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3(2), 27-44.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언아 (2000). 예비 유아교사의 자아개념, 학습스타일과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심, 박수미 (2003). 유치원 교사의 동작교수효능감에 따른 동작교육에 대한 태도 및 교수실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241-266.
- 김향자, 이현옥, 허은자 (2004). 유치원 교사들의 수학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4), 199-216.
- 남미경 (2006). 예비보육교사의 교사역할인식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보육실습기관 관련 변인의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1(6), 177-198.
- 박선훈, 고영인 (1998). 예비 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의 교육신념에 관한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4(1), 21-44.
- 박은혜, 이은화 (1998). 반성적 사고신장을 위한 교육실습지도. *교과교육학 연구*, 2(1), 187-204.
- 배소연 (1993). 유아교사교육에 있어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논문집*, 11, 603-631.
- 신은수 (2000). 놀이에 대한 교사 효능감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놀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1), 27-42.
- 안진경 (2006). 포트폴리오 평가를 적용한 유아수학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6(5), 173-190.
- 윤기욱, 정문성, 최유현, 고경석 (2002). 교육대학교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발전방안의 탐색: 반성적 교사교육의 관점.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논총*, 19, 347-369.
- 윤정일 (200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양성체제의 발전방향. *한국교원교육연구*, 19(1), 5-24.
- 이경옥 (2002). 현직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의 교사신념에 관한 연구: 목표지향성, 교사효능감 및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교사신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8, 195-212.
- 이기영 (2007). 교사의 보육신념, 보육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및 영아 기질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분려 (1998). 유치원 조직풍토와 직무만족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세나, 이영석 (2005). 보육교사의 효능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6), 45-58.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
- 이혜주 (2002). 유치원 현장 실무 교육이 예비 교사들의 교사 효능감과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1(1), 17-31.
- 이혜주, 전명남 (1998). 교직경력에 유치원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7(1), 16-26.
- 전인옥 (1996). 교사의 교육신념과 자아효능감이 유아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2, 493-528.
- 정진선 (2000).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1, 195-216.
- 정혜영 (2004).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기대와 평가, 교육실습을 통한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209-230
- 조부경, 서소영 (2001).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에 따른 과학교수 실제 및 유아의 과학행동. *유아교육연구*, 21(2), 5-27.
- 조부경, 서소영 (2002).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예비 유아교사의 과학 및 과학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한국교사교육*, 19(1), 137-155.
- 최성상 (2005). 인천지역 유아교사의 직무만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평가에 관한 연구. 과천: 보건복지부.
- 한석실, 임명희 (2003).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 확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1), 207-240.
- 현정환 (2003).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6), 117-131.
- 황윤세, 장영숙, 최미숙 (2004). 교육실습경험 및 실습기관의 조직풍토가 예비 유아 교사의 자아개념, 역할수행 및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8, 195-218.
- Amor, D, Conroy-Osequera, P, Cox, M, King, N, McDonnell, L, Pascal, A, Pauley, E, Zellman, G (1976). *Analysis of the school preferred reading programs in selected Los Angeles minority school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Ashton, PT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5), 28-32.
- Bandura, A (1977).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s.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rophy, JE, Evertson, C (1977). Teacher behaviors and student learning in second and third grades. In

- Borich, G. D. (Ed.), *The appraised of teaching: concepts and process*. MA: Addison-Wesley.
- Carter, K, Richardson, V (1989). A curriculum for an initial-year-of teaching program.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9(4), 405-419.
- Czerniak, C, Chiarelott, L (1990). Teacher education for effective science instruction-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1(1), 49-58.
- Denham, CH, Michael, JJ (1981). Teacher sense of efficacy: A definition of the construct and a model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6(1), 39-63.
- Enochs, LG, Scharmann, LC, Rigg, IM (1995). The relationship of pupil control to preservice elementary science teacher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Science Education*, 79(1), 63-75.
- Gibson, S, Brown, R (1982). Teacher's sense of efficacy: Change due to experi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alifornia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cramento.
- Gibson, S, Dembo, M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69-582.
- Gibson, S, Dembo, M (1985).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 important factor in school impr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6(2), 173-184.
- Gorrell, J, Hwang, YS (1995). A study of efficacy among preservice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8(2), 101-105.
- Guskey, TR (1988). Teacher efficacy, self concept, and attitudes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instructional innov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4(1), 63-69.
- Guskey, TR, Passaro, PD (1994). Teacher 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dimens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3), 627-643.
- McCullough, LL, Mintz, SL (1992). Concerns of pre-service students in the USA about the practice of teaching.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18(1), 59-67.
- Pajares, F (1992). Teacher's beliefs and educational research: cleaning up a messy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07-332.
- Ramey-Gassert, LK (1993). *A qualitative analysis of that influence 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e beliefs in elementary teachers(teachers belief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Mangattan.
- Ramsey-Gassert, L, Shroyer, MG (1992). Enhancing science teaching self-efficacy i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 *Journal of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4(1), 26-34.
- Shapiro, PP, & Sheeban, AT (1986). The supervision of student teacher. *Journal of Teaching Education*, 37, 35-39.
- Shere, M, Maddux,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1982). The self-efficacy sale: Constitu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mith, JP (1996). Efficacy and teaching mathematics by telling: A challenge for form.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7, 387-402.
- Solberg, VS, Good, GE, Fischer, AR, Brown, SD,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Trentham, L, Silvern, S, Brogdon, R (1985).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competency ratings. *Psychology in the school*, 22, 343-352.
- Watters, JJ, Ginns, IS, Neumann, P, Schweitzer, R (1994). *Enhancing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udents' sense of science teaching self effica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ustralian Teacher Education Association,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75 141.)
- Zeichner, KM, Liston, D (1987). Teaching student teachers to reflect. *Harvard Education Review*, 57, 23-48.

(2007. 3. 16 접수; 2008. 1. 10 채택)